

# 영화 <The Square, 2017> (Ruben Ostlund 감독)

신뢰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리는 타인(낯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 김 새 미

<영화 속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 수업 전 생각거리

영화 <The Square>에서 예술작품인 '더 스퀘어'의 공간이 현실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Yes,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사례, 실천이 이뤄지는 공간은 어떤 곳이 있는가?

No,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 장애물, 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재 사회에서 해당 공간이 의미하는 바 혹은 역할이 있는가?

## 강의 내용

- I. 들어가며, 세계화와 타자
- II. 타자의 차이에 대한 관계 설정
- III.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이론적 고찰
- IV. 영화 'The Square'(2017)와  
데리다(Jacque Derrida)의 환대(hospitality)
- V. 나가며, 현재 우리에게 환대가 갖는 함의

## 국내

- 극혐(2014)
- BBC 설문 조사(2018, 27개국)
  - ✓ 배경과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인가?
  - ✓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 해외

- 보수 민족주의, 국수주의, 고립주의 현상
  - ✓ Brexit
  -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Donald J Trump)
- 다양성 및 포용성 기반의 가치 추구

## 코로나 사회: 전대미문, 통제불능, 예측불허



### 개 인

사회적 거리 두기

고립, 소통 단절

우울, 불안, 두려움, 혐오, 배척 등

부정적 감정과 심리적 피로 누적

코로나 블루



###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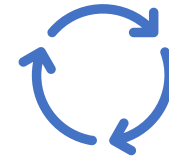
타자화의 심화

감염의 정치화 현상

불안정성/불확실성 심화

격차/사회적 간극의 증대

다양한 갈등 내재



### 사회 시스템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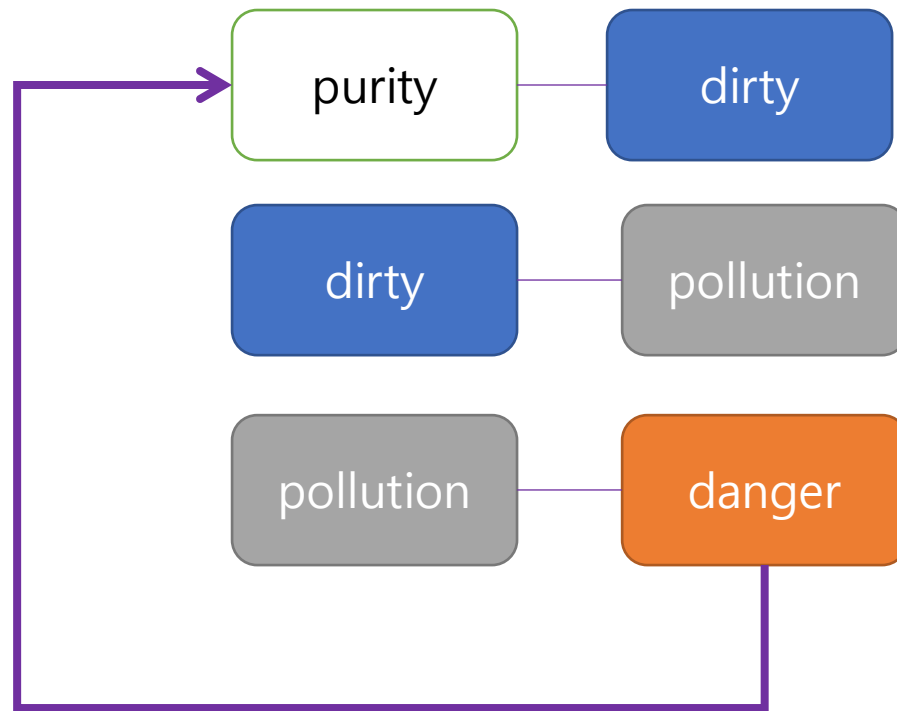
- 문화적 소통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의 증가

- 사회적 관계 증진, 참여와 연대감

## 메리 더글라스의 『순수와 위험』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1966)

- 순수vs불결
- 난민,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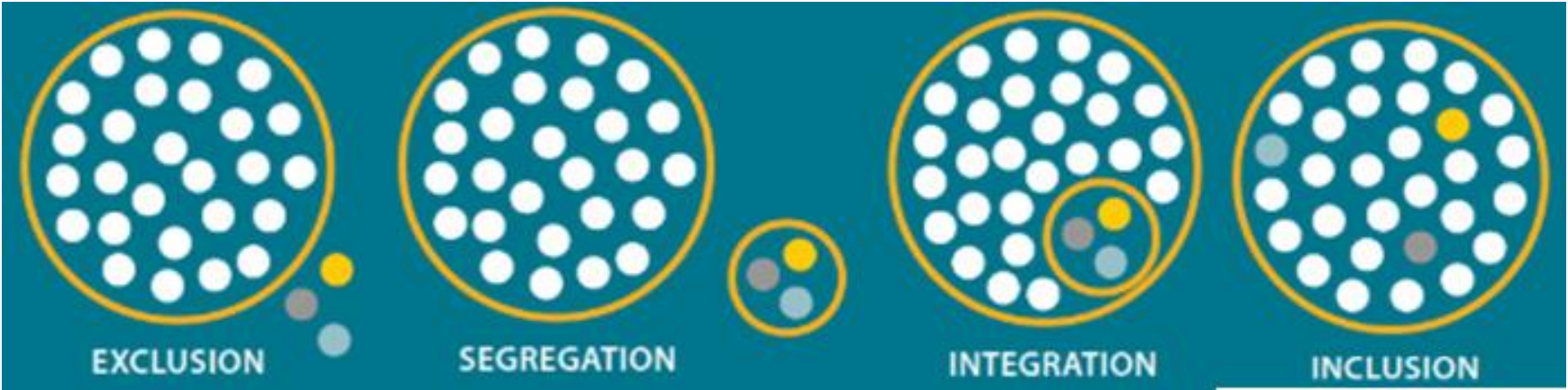
어떤 체계에 범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불어 그 행위를 반추하면서  
체계를 강화함.  
이러한 행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며  
사회적 제의활동(사회적 재강화)  
역할로 작동

\*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제의 +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

## II. 타자의 차이에 대한 관계 설정

다문화주의: 공존을 허용  
인정  
관용- 차이의 존재를 용납

UN 국제인권조약(대상별 II) 장애인인권위원회 일반논평4 (24조 포괄적 교육의 권리(2016년 8월 26일 채택)



동화적 통합  
(assimilated  
integration)

포용/포괄적 통합

변화해야 하  
는 주체→  
이주민, 난  
민

- 우리는 타인, 낯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 우리가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민주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 III.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이론적 고찰

#### 데리다(Jacques Derrida)

- 고정적이지 않은, 서로의 입장이 역전되는 상황 반영
-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태도

- 세넷(Richard Sennett) 경청(listening)

- - 엠케(Carorlin Emcke)와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 등

환대(Hospitality)

공생(Conviviality)

그 외 다양한 논의들

#### 길로이(Paul Gilroy)

- 차이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to difference)
- 문화적 차이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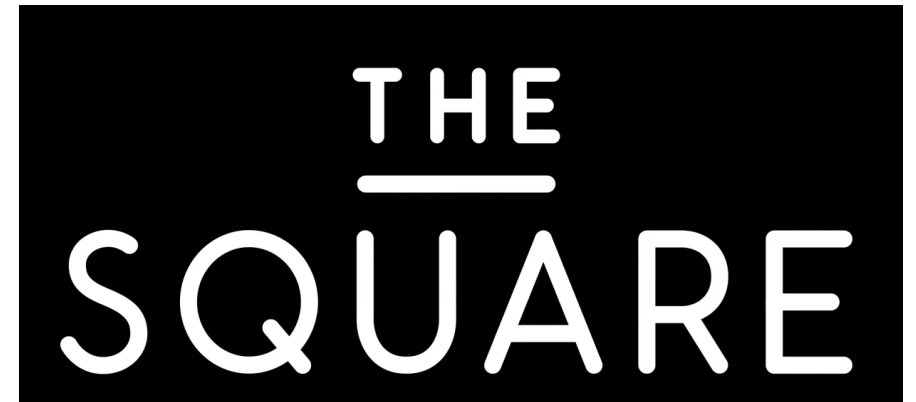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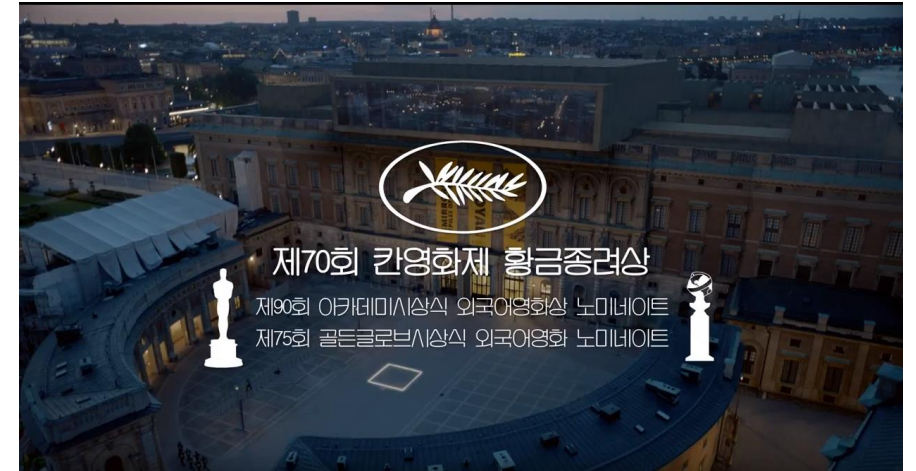
### III.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이론적 고찰

#### ◆ 데리다(Jacque Derrida)의 환대(hospitality)

- Postmodernism
- 환대: 절대적, 무조건적, 조건적 환대
  - 칸트(세계시민적 전통에서의 환대)
  - 레비나스(얼굴 개념을 통해 본 환대)
  - 데리다(환대의 법들)
- 이율배반-아포리아

# 더 스퀘어 (The Square, 2017)

- 감독: 루벤 외스틀룬드
- 스웨덴, 독일, 프랑스, 덴마크
- 스웨덴 스톡홀름 현대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 자신이 지키던 도덕적 원칙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모순적 행동
- 현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IV. 영화 'The Square'(2017)와 데리다(Jacque Derrida)의 환대(hospitality)



-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 Help me / Help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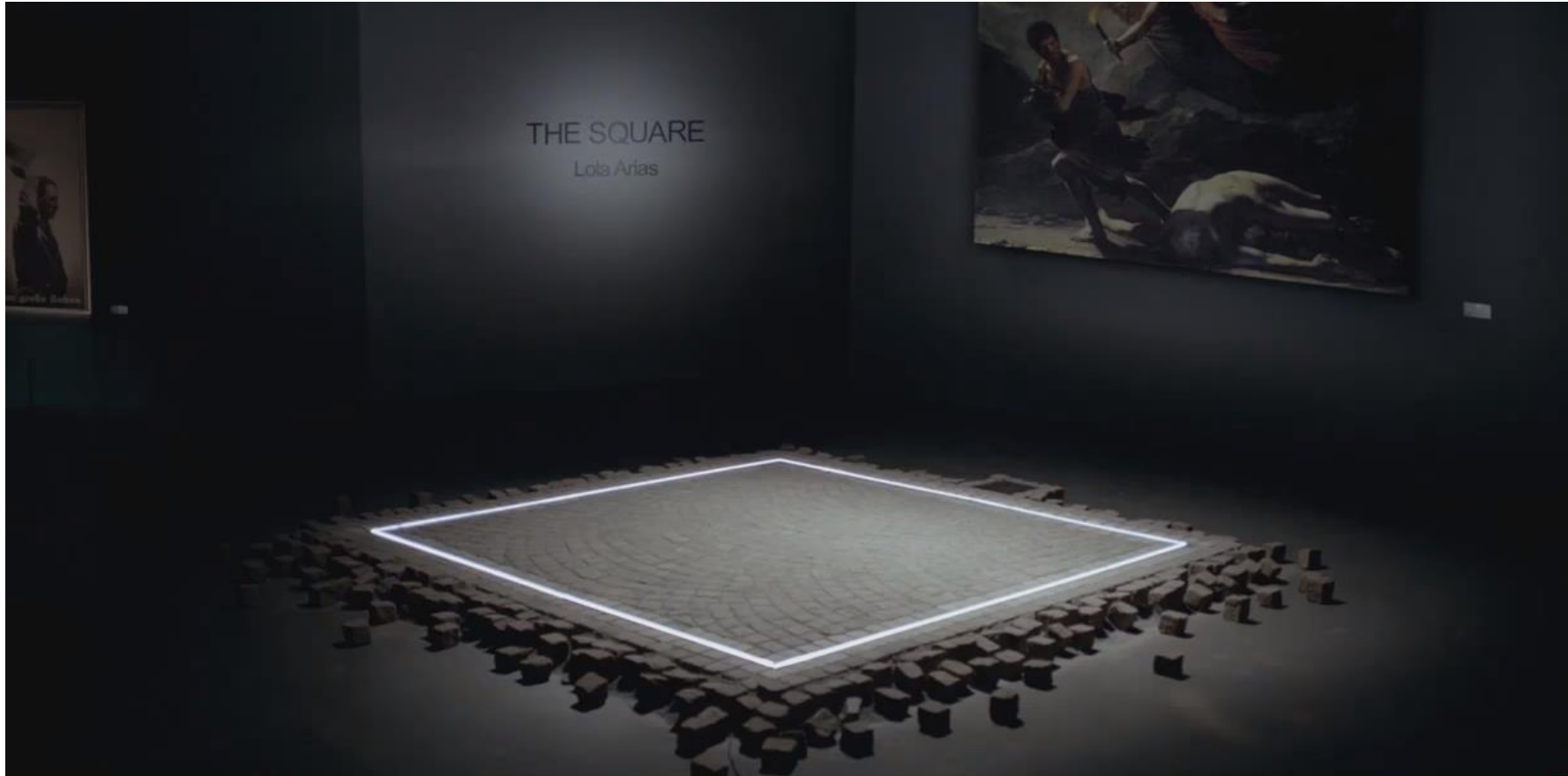
# 더 스퀘어 (The Square, 2017)

SBS 디렉터스 컷:

<https://www.youtube.com/watch?v=PIhLUO3V5y4>

공식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iaaVPpulio>



**“더 스퀘어(The Square)” 예술 프로젝트: 신뢰와 배려의 공간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IV. 영화 'The Square'(2017)와 데리다(Jacque Derrida)의 환대(hospitality)

- 선택적 이타주의
- 난민을 보는 시선, narrative의 변화
- 매개체, 미디어의 역할
- 도덕적 딜레마

## V. 나가며, 현재 우리에게 환대가 주는 의미

- Z 세대: 연대
-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요건

데리다의 환대가 갖는 함의는? 현재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